

종교적 사유와 에로스(eros) 개념 -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중심으로 -

김영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Religious Thinking and the Concept of Eros - Focusing on the Finiteness of Human Existence -

Kim, Youngchul

Dongguk University Gyeongju

yckimphil@hanmail.ne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value and role of religion in connection with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eros. In addition, based on the concept of eros,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Plato's philosophical thinking, the subject of discussion is expanded and unfold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iteness of human existence and the role of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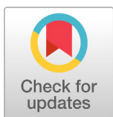
The conten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eros has the character of critically reflecting on the current state. Second, thinking of eros has the character of a work that unites two disconnected objects. Third, in the character of eros thinking, there was a potential for a regression to one's original form as well as a dual and mesophilic mea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n alternative reason for thinking of eros that presents hope for life to modern people suffering and despair in today's society. Second, religion was able to make the future of modern people positive by realizing the values of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only when it was based on the thinking of eros.

Key Words: Plato, eros, agape, finiteness, religious thinking

I. 들어가는 글

작금의 시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 삶의 총체적인 양상이 재편되고 있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기존의 직접적인 대면 양식의 삶의 방식이 비대면이라는 언택트 방식으로 삶의 패턴이 총체적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적 양상은 시대적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종교 행위나 종교적 실천 양식을 답습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과 함께 심지어 조롱까지 받는 실정에 처해 있다. 어쩌면 종교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어쩌면 이러한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위상이나 평가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 종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종교의 역할이나 가치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사는 것이다.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245-254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29>

Received: November 30, 2020

Revised: December 17, 2020

Accepted: December 18,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지금까지의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종교는 인간이 처한 실존적 유한성에 대한 대안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었는가? 분명 종교는 근원적 고통과 유한한 삶에 대한 불안 등으로 불행한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인간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를 제공하는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하지만 종교가 지닌 지금의 위상은 사뭇 달라 보인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권위적이고 고답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각 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와 역할을 지키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공동의 가치와 개인의 요구에 대한 비판적 고민과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지 않다.

종교를 뜻하는 라틴어 religio는 ‘재결합하다’ ‘다시 잇는다’는 뜻을 지닌 동사원형인 religare에서 나온 단어이다. 이는 곧 서양에서는 종교가 지닌 의미를 인간이 신과 재결합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뜻한다. ‘재결합’ 또는 ‘다시 이음’이라는 단어는 ‘서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작금의 현실에 대입하여 표현하면, 종교가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불합리와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하지만, 도리어 반대로 사회적으로 계층 간이나 지역 간에 반목과 시기 질투 등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치부되고 또한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듯하다. 이는 비단 한국의 종교에만 적용되는 부정의 논리는 아닐 것이다. AI 등과 같이 기계물질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인간 삶의 지향이나 패턴 등이 변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새로운 사유 지평이 필요한 시대에서 종교 또한 고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어쩌면 시대가 종교에 부여한 큰 과제일지도 모르겠다. 사회적 대통합과 종교 자체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의한 대안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곧 종교가 기존에 담당해 왔었던 사회적 대통합의 가치를 제공하여 종교 본연의 자세를 되살려야 함을 뜻하는 것이지 싶다.

이 연구는 종교 본연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를 에로스(eros)라는 철학적 개념과 연계하여 전개한다. 이를 통해 작금의 시대에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판적 사유라는 틀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에로스 개념에는 전통적인 종교의 본질적 의미와 함께 변화하는 종교적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 어쩌면 이는 망각하고 지내온 종교 자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자 본래의 의미를 상기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 전개일지도 모른다. 전통적으로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찬란했던 문화적 유산, 특히 철학적 사유에 위대함을 노래하곤 했었다. 그래서 그들은 고대 그리스의 사유 유산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바라면서 살았다. 그래서 헤겔(G.W.F. Hegel)은 자신의 역사철학적 사유에서 고대 그리스 사유에는 절대정신이 존재했었고, 다시금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었다. 물론 이러한 사유의 근간에는 플라톤(Platon)의 사유 지평이 놓여 있음은 주지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논의도 플라톤의 철학적 사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에로스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논의의 주제를 인간 존재의 유한성 문제와 종교의 역할이라는 관계로 확대하면서 전개한다.

II. 에로스적 사유

에로스(Eros)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이며, 플라톤의 대화편 <symposion (향연)>에 의해 철학적 무대에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개념이다. 그 화려함은 실로 엄청나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학문을 대표하는 철학의 정의적 의미를 상징할 정도로 실로 대단했었기 때문이다. 철학은 어원에 근거하여 정의를 할 때 지혜에 대한 사랑 혹은 열정으로 표현한다. 이 사랑이나 열정이 의미하는 바가 에로스로서의 사랑을 뜻했다. 물론 오늘날의 에로스, 즉 에로스적 사랑은 인간의 욕망이나 욕구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나 욕구에서 발생하는 사랑으로 생각한다.

플라톤은 대화편 <symposion (향연)>에서 에로스가 지닌 다양한 의미에 관하여 논하고 있지만², 그러한 의미들은 모두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엇에로의 지향 혹은 추구로서의 사랑인 에로스는 소크라테스의 스승으로 상징되는 디오티마(Diotima)에 의해 최종적으로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으로 정립된다. 말하자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에서 오는 결핍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으로서의 사랑, 즉 더 이상 육체적인 불완전한 사랑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본연의 사랑을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으로서의 사랑을 뜻한다. 이는 곧 에로스가 사랑 자체나 아름다움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곧 지혜를 말한다. 따라서 에로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람들은 곧 현자로서의 철학자³를 뜻한다.⁴

플라톤 철학에서의 에로스 개념은 현재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성격을 지닌다. 현재의 기준에서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전반의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그 과정의 출발점인 현재의 모습은 육체적 욕망이나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에 대한 성찰, 즉 내면으로의 성찰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감각적 욕망이나 욕구는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을 망각케 하여, 참된 진리 대신에 거짓된 자신의 모습만을 보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의 눈 대신에 내면의 정신적인 눈으로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 우선해야 한다. 이때야 비로소 자신의 무지, 즉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에 대한 자각이 가능해지며, 그로부터 자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내면적 성찰, 즉 정신적인 눈으로 심연에서 잠자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보고 되찾고자 하는 행위가 가능케 된다.

에로스적 사랑은 단절된 두 개의 대상을 하나로 묶는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에로스적 의미는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서 디오티마와 소크라테스 대화에서 나오는 에로스의 탄생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로스는 가난의 신인 어머니 페니아(Penia)와 풍요의 신인 아버지 포로스(Poros)의 사이에서 태어남으로 인해 서로 상반되는 부모의 본성을 소유한 채 태어났다. 에로스는 어머니 페니아의 본성으로 인해 가난하고 추한 모습으로 상징되는 결핍의 성질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아버지 포로스의 본성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으로 상징되는 선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묘사된다. 이는 곧 에로스가 이중적인 본성을 소유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두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존재임을 뜻하기도 한다. 에로스가 겪고 있는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불완전한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이자 자신의 내면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본연의 삶에 대한 회귀를 뜻하기도 할 것이다. 이를 플라톤은 자신의 존재론적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감각의 세계이자 현상계로서의 불완전한 세계에 존재하는 인간이 자신의 본연의 세계인 아름다움과 선의 세계인 이데아계로 귀환하려는 일련의 인식론적 노력으로 설명했다. 에로스의 모습은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면 불완전하고 결핍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상징한다. 하지만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하면 결핍된 자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성찰하여, 잃어버린 자신, 즉 본연의 삶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상기(기억)의 과정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에로스적 사유의 과정은 플라톤의 사상적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철학사상을 정립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확립한 철학자 플로티노스(Plotinos)는 두 개의 상이한 세계와 그 상이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문제를 자신의 형이상학에서 다뤘다.⁵ 플로티노스는 이 세상을 서로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실체로 구분하는 대신에 일정 부분 정도의 공통적 속성을 지닌 세계로서의 정신계와 물질계로 구분했다. 말하자면 이 두 세계는 서로 다른 세계이지만, 내면에는 서로를 연결해 주는 일종의 공통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르지만 같은 세계, 즉 둘이면서 하나인 세계로서의 정신계(하나)와 물질계(다수)를 상정했다.

먼저 플로티노스 사상에서 정신계와 물질계가 다르다는 의미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존재가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존재론과 연계하여 설명된다. 존재론적 성격은 에로스의 불완전한 속성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에로스는 자신의 비극적 탄생으로 인해 항상 어떤 것에 대해 욕망한다. 이는 곧 자신의 부족함, 즉 결핍을 뜻하며, 이로 인해 그는 불완전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쩌면 방황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에로스적 삶은 자기 자신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자각하지 못하고, 감각적인 현상에 눈이 먼 상태로서의 무지한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크라테스(Sokrates)도 에로스가 아름다운 것으로서의 선을 욕구하고 추구하는 것, 즉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중립적인 것이며, 아직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거나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서 생각하여 중간자로서의 의미를 부여했었다. 말하자면 에로스적 사랑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다워지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자신에 내재하는 본래적 속성을 망각한 삶을 뜻하면서도, 언제든지 자신의 노력, 즉 욕구나 추구로 자신에 내재하는 아버지 포로스의 속성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도 인간은 부족한 자신의 욕구 대상을 감각에 의존하여 추구하면서 행복해지고자 하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자기 행복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인 행복은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인 정신적인 것, 즉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선 자체를 추구하는 것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플로티노스는 이러한 에로스적 삶의 과정을 자신의 존재론에서, 즉 완전한 존재인 하나(to hen)로부터 점차적으로 멀어지며 불완전한 다수의 세계인 현상세계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⁶ 그리고 이러한 그의 존재론에는 에로스적 욕구로서의 상승의 논리, 즉 아름다움과 선을 추구하여 도달 가능한 논리가 잠재되어 있다. 플로티노스의 상승의 논리는 에로스가 자신에 내재하는 아름다움과 선한 본성을 찾고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이나 욕구가 실현될 가능성은 에로스의 본성에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었듯이, 플로티노스의 존재론, 즉 프로도스(proodos) 개념에도 이미 그러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플로티노스는 본연의 상태로 회귀하는 과정을 에피스트로페(epistrophe)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에피스트로페는 인식론적인 의미를 지니며, 일자(하나)로부터 멀어진 하위의 존재들이 자신의 내면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일자의 자각을 통해서 본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뜻한다. 또한 플로티노스는 이러한 본연으로의 회귀 과정을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이미 피타고라스가 인간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한 개념인 정화(Katharsis), 즉 영혼의 정화를 통해 육체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욕망으로서의 에로스를 뜻한다.⁷ 또한 이는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명제 “네 자신을 알라”가 담지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무지의 원인은 거짓된 현상세계를 지각하는 육체적 감각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적이며 감각적인 것들과 단교할 때에야 비로소 무지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본연의 참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적 사유 전통에서 본 에로스적 사유의 성격에는 이중적이면서도 중간자적인 의미도 담재되어 있지만,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귀라는 의미도 잠재되어 있다. 이는 곧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더 발전하는 변증의 논리를 뜻하기도 한다. 아무런 자기반성이나 성찰이 없는 답보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면, 더 이상의 아무런 발전도 없을뿐더러, 도리어 보다 더 타락하고 무지한 상태에 매몰되어 있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을 간과하면, 더는 사회와의 소통도 공감의 기회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나아가서는 스스로도 소외되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지 싶다.

III. 종교적 사유에서의 에로스(eros)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적 사유에서 사랑을 논의할 때 주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이다. 아가페(agapao, agape)는 존경, 숭배라는 뜻으로 신과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인간은 아가페적 사랑, 즉 신에 대한 존경 혹은 숭배를 통해 신과 만나며, 하나가 되고자 했다.⁸ 아가페적 사랑은 인간이 신과의 합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은 그리스도교적 사랑, 즉 신의 사랑을 모방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녔으며, 이곳이 곧 타인, 즉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는 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된 존재, 즉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 데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서양 중세 사상가들의 사유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근대 철학자인 스피노자(Spinoza) 또한 자신의 대작인 윤리학<Ethica>에서 사랑은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정신적인 사랑으로서의 아가페적 사랑이며, 이를 추구하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 즉 자신의 삶을 탐구해야 한다고 했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들은 종교적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만 생각해 할 수도 있지 싶다. 말하자면 아가페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 에로스는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욕망과 욕구, 즉 감각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지니는 위상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작금의 시대는 과거 서양 중세기처럼 종교가 사회와 국가의 이념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 즉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던 상황과는 다르다. 어쩌면 지금의 종교는 하나의 선택적 요소로서의 위상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이는 누군가에게 선택당해야 하는 매우 소극적인 처지에서의 위상성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어떤 상품이 소비자에게 선택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나 요구에 상응하는 논리가 필요하듯이, 종교도 마찬가지로 현대인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는 논리, 즉 변화되고 변화하는 현실을 일정 부분 이상 수용하고 반영하는 종교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의 권위와 보수적 논리에 안주하여, 변화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응하는 고민이 없으면, 종교는 어쩌면 자신의 본질적인 역할도 포기한 채로 소수의 특권 계층의 이해 논리만을 대변하는 사익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

물론 아가페적 사랑에도 종교 본연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 이는 아가페적 사랑에 화합과 통일의 가치가 내포되어 있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즉 실현 가능한 장(場)이 제공되어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아가페적 사랑은 일방향적인 관계 논리이다. 쌍방의 동등한 자격으로 만나 하나를 이루거나 종합하는 논리가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의 일방향적인 사랑의 관계이자, 신의 논리에 복종하는 형태의 사랑이다. 하지만 에로스적 사유, 즉 에로스는 일방향의 논리가 아니라 쌍방향의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 에로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본성을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한다. 이는 현재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이며,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현재의 불완전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다 나은 그리고 더 발전된 삶을 추구하는 에로스의 삶인 것이다.

에로스적 사유는 사랑을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여 추구하는 데에서 오는 결함이나 결핍 등과 같은 무지함을 깨닫도록 하는 역할을 내재한 기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에로스적 사유가 현상에 보이는 물질이나 감각적인 것에서 보이지 않는 실재적 존재인 정신적인 것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변증법적인 의미를 띄고 있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작금의 현실적 문제를 현상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않고, 현상의 근원에 놓여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물질문명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철학자는 작금의 문명사회를 고통과 불행의 이미지로 묘사한다. 기계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풍족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 반대로 기계와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어 고통스러우며 불행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고 말한다.⁹ 그래서 칼라일(T. Carlyle)은 현대의 사회를 “기계의 시대”라고 불렀으며, 인간이나 인간의 삶은 기계적으로 통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마르쿠제(H. Marcuse)도 자신의 저작 <에로스와 문명>에서 현대 산업사회를 1차원적 사회로 보면서 “이제 세상은 기계와 기계의 만남”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회의 인간은 한 가지의 사고에만 매몰되어 획일적인 생각만 하며, 어떤 다른 대안이나 생각이 단절된 사고, 즉 억압과 복종만 존재하지 비판이나 그러한 사유가 마비된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대의 인간은 이미 이 사회의 주인이 아니다. 단지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상품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닌 존재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와 자기 스스로로부터도 소외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며 반성하면서 능동적으로 주도하고자 하는 많은 인간도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인간 자신에게 주어진 유한성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다. 인간은 자기 존재성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유한한 삶에 대한 불안감이다. 이러한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은 키에르케고르(S. Kierkegaard)의 사상, 즉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난다.¹⁰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내면의 반성을 통해 자기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한다. 이는 존재의 무한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겪는 절망감이며, 무한을 추구하면 할수록 이러한 절망감은 더 커진다고 보았다. 인간은 절망감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며, 스스로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A. Schopenhauer) 사상의 핵심도 인간 존재의 유한성 문제로서의 죽음에 대한 논의이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모든 존재가 경험하는 근원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죽음의 유한성을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소멸하는 존재로 생각했다. 물론 키에르케고르와 쇼펜하우어가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는 절망감을 신에게로 다가가는 긍정의 메시지로 이해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 개념에 그 어떤 긍정의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인간은 자신이 지닌 유한성으로 인해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 어떤 희망도 지닐 수 없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고만 보았다. 하지만 인간 유한성 문제에 대한 두 철학자의 사상은 작금의 현실에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세계와 삶의 본질 그리고 삶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 존재의 유한성 문제는 종교적 사유가 지닌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¹¹ 인간이 종교에 의존하며 귀의하는 이유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모두는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닌 근본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이러한 유한한 존재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유한성을 극복하여 고통과 불안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의 본질적인 요소인 유한성 극복을 위한 인간의 삶은 곧 에로스의 삶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스스로가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자신의 본성을 인식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여 보다 발전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인간은 종교와 만나게 되며, 종교의 가르침인 교(敎)를 통해 유한한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여 보다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종교적 사유로서의 에로스는 종교의 가르침인 교(敎)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삶의 양상이 다양하게 존재하듯이, 자신의 고통과 불안 등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개인의 모습도 다양하다. 이전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일 것을 암묵적으로 명령하면서, 종교가 정한 자신들의 가르침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강요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말하자면 종교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가치와 역할을 신자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소통과 공존의 시대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삶의 가치와 역할을 정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는 곧 시대가 종교의 자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종교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동시에 종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적 사유로서의 에로스는 단지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이나 욕구만을 뜻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종교적 사유로서의 에로스는 종교 자체가 행하는 반성적 성찰을 의미하며, 새로운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종교와 인간이 동등한 위상에서 함께 고민하며 소통하여, 서로의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이 곧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사유로서의 삶이 실현되는 일련의 과정이며, 에로스적 사유이며 역동적인 삶의 행위인 것이다.

IV. 나가는 글

지금까지 에로스적 사유 안에 오늘날 사회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현대인들이 던지는 대안적 질문에 대한 답이 내재하여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서양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종교가 일방적으로 제시했었고, 인간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삶을 영위하였다. 이는 일종의 명령과 복종의 논리였으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일방향적인 사랑의 논리였다. 이러한 아가페적 사유의 논리에는 인간이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열정이나 욕구가 전혀 없었다. 오직 인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 평정심을 유지토록 도와줄 뿐이었다.

하지만 에로스적 사유에는 인간 존재 자신의 주체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인 의미의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플라톤의 에로스적 사유의 논리에서 잘 나타났었다. 말하자면 에로스적 사유는 유한하며 불완전한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인간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내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무한성과 완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에로스적 사랑이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이는 불완전한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한 동경이자 자신의 내면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본연의 삶에 대한 회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에로스적 사유는 역동적이었다. 이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사유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종교적 사유에는 이러한 에로스의 역동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결국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처한 실천적 상황을 적절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작금의 현실에서 종교는 새로운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곧 종교가 고통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에게 생명수의 역할을 지속해서 담당하는 길이자 동시에 종교 자체의 존립 여부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될 문제로 보인다. 이제 종교적 사유도 인간이 유한성을 자각하여 자신에 선천적으로 내재한 무한성을 추구하듯이, 자기 성찰과 비판을 통해 종교의 가치와 역할에 대하여 변증법적인 사유 방식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지금껏 간과해온 문제에 대한 대안적 사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사유의 가능성은 에로스적 사유에 함축된 자기 성찰의 논리와 미래를 향한 긍정의 논리 속에 있지 않다. 에로스적 사유를 근간으로 한 종교만이 소통과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여 현대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종교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에로스(eros)라는 철학적 개념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또한 플라톤의 철학적 사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에로스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논의의 주제를 인간 존재의 유한성 문제와 종교의 역할이라는 관계로 확대하여 전개한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에로스 개념은 현재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성격을 지녔다. 둘째, 에로스적 사유는 단절된 두 개의 대상을 하나로 묶는 작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셋째, 에로스적 사유의 성격에는 이중적이면서도 중간자적인 의미와 함께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의 회귀라는 의미도 잠재되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에로스적 사유에는 오늘날 사회에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현대인에게 삶의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적 사유가 있었다. 둘째, 종교도 에로스적 사유를 근간으로 할 때 비로소 소통과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여 현대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주제어

플라톤, 에로스, 아가페, 유한성, 종교적 사유

참고문헌

Platon, *Symposion*, Platon Werke Bd.3.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77.

Plotin, *Plotins Schriften*, Griechischer Text, deutsche Übersetzung, Anmerkungen. Neubearbeitung, Bände I und Vc (Porphyrios, Über Plotins Leben) von R. Harder, Bände II, III, IV, V a-b von R. Beutler und W. Theiler, Band VI (Indices) von W. Theiler und G. O'Daly, Hamburg 1956-1971.

Plotin, *Seele - Geist - Eines*, hrsg. v. Klaus Kremer, Hamburg 1990.

김영철,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의 구조와 특징」, 『범한철학』 42호, 범한철학회, 2006.

김현희, 「플라톤의 에로스에 관하여 - 『심포지온』의 구조 및 신화해석-」, 『미학』 28집, 2000.

선한용, 「기독교적 아가페와 플라톤적 에로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시도」, 『신학과 세계』 28권, 1994.

이기백, 「플라톤의 에로스론 고찰」, 『철학』 34, 한국철학회, 1990.

장욱, 『중세 철학의 정신』, 서울: 동과서, 2002.

조대호, 「플라톤 철학에서 기억과 영혼」, 『범한철학』 66호, 범한철학회, 2012.

조우현 엮음, 『희랍 철학의 문제들』, 서울: 현암사, 1993.

프리도 릭켄, 『고대 그리스 철학』, 김성진 옮김, 서광사, 2000.

플라톤, 『향연』, 강철웅 옮김, 서울: 이제이북스, 2014.

Cornford, F. M., "The doctrine of Eros in Plato's Symposium" *The Unwritten Philosophy and Other Essays*, edited by W. K. C. Guthri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0.

Guthrie, W. K. C., *History of Greek Philosophy 1. 4. 6.*,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2.

Hunter, Richard, *Plato's Symposiu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Endnote

- 1 동양에서는 이해하는 종교의 종(宗)은 확립된 진리이며 성취된 것의 극치(반야, 해탈 등)를 뜻하며, 교(敎)는 종(宗)에 도달하기 위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宗)은 하나이지만 종(宗)에 이르게 하는 교(敎)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종교가 존재한다고 본다.
- 2 플라톤은 에로스를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표현한다. 첫째, 에로스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다.(199e) 둘째, 에로스는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 또는 욕구이다. 즉 에로스는 자신이 욕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욕구하거나 사랑한다.(200a) 셋째, 에로스란 오직 아름다움 혹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이다.(201a) 넷째, 지혜와 무지 사이에 바른 의견이 있는 것과 같이(202a),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것이다.(202b), (이기백, 『플라톤의 에로스론 고찰』, 『철학』 34, 한국철학회, 1990, pp. 146-147 참조.)
- 3 철학자는 지혜 있는 자와 무지한 자의 중간에 있는 중간자로서, 무지에서 지혜로 나아가려는 자를 뜻한다. 그래서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으로 정의되며, 철학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philosophos), 즉 지혜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기백, 『플라톤의 에로스론 고찰』, 『철학』 34, 한국철학회, 1990, p. 147 참조.)
- 4 플라톤, 『향연』, 204b, 참조.
- 5 “플로티노스는 두 세계의 연관관계를 플라톤적인 참여론(이데아론)에 의해서 설명하고자 했다. 플로티노스는 정신적이며 지적인 세계를 감각적으로 감지되는 세계의 원형 내지는 원인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감각적 경험적 세계는 정신적 세계의 드러남(외적모습) 또는 정신적 세계의 모상이라고 생각했다.” 감각적 세계에서 가장 완전히 아름다운 것이 있는 것과 같이, 정신적 세계에서도 완전한 선의 계시가 있으며, 이들 모든 세계는, 즉 감각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는 끝없이 진리를 추구하지만, 정신적인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진리에 나아갈 수 있고, 감각적인 것이 진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존재에 참여 내지는 모방을 함으로서만 가능하다.” (Plotinos, *Enneades*, IV 8, 6, 23-28)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세계가 원형으로서의 정신적 세계의 모상이라는 생각이 의미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세계가 정신적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이성적 정신적 구조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천상의 정신이나 이성적 형식과 동일하지 않고, 단지 그 것의 일부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Plotinos, *Enneades*, III 2, 2, 31-36). 그러므로 감각적 지각 가능한 세계는 정신으로부터 소산되어지는 이성적 구조에 참여함으로서만, 즉 감각적 세계는 정신적 세계의 이성적 구조 안에서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철,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의 구조와 특징』, 『범한철학』 42호, 범한철학회, 2006, p. 139.)
- 6 플로티노스의 존재론은 하나에서 다수로 하향하는 존재론적 논리인 프로호도스(proodos)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는 유출설이란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유출(emanatio)은 “마르지 않는 샘물”의 비유(Plotinos, *Enneades*, III 8, 10 참조)에서 나타난 '흘러넘침'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일자로부터 하위의 존재들이 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일자는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실체(hypostase)로서 총만된 것이다. 이 총만된 일자가 흘러넘쳐서 그 다음 실체, 즉 항상 일자로만 향하려고 하는 정신(nous)이 산출되며, 계속 흘러넘쳐서 세 번째 실체로서의 영혼(psyche)의 단계가 산출되며, 그 밑으로 물질, 즉 질료(hyle)들이 생성된다. 따라서 프로호도스는 일자로부터 사물들이 산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인 것이다. 물론 프로호도스가 유출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프로호도스는 단순히 흘러넘침에 의해서 일자로부터 누스, 영혼 그리고 물질이 생산된다는 것만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단계들의 흘러넘침 속에는 일자에 대한 관조(theoria)가 계속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프로호도스는 단순한 하향 형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의 의미도 담지하고 있는 개념인 것이다. (김영철,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의 구조와 특징』, 『범한철학』 42호, 범한철학회, 2006, p. 138 참조.)
- 7 플로티노스도 타락한 자신, 망각한 자신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정화(katharsis)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영철, 『플로티노스의 형이상학의 구조와 특징』, 『범한철학』 42호, 범한철학회, 2006, pp. 138-141, 152-155 참조.)

- 8 니그렌(A. Nygren)은 <Agape and Eros>에서 아가페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표현했다. 인간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가치 추구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이 죄인을 향해 밑으로 내려오는 사랑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위로부터의 사랑이라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니그렌은 아가페적 사랑을 네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아가페적 사랑은 창발적이고, 동기가 없는 사랑이다. 이 사랑의 동기는 하느님 이외에서는 찾을 수 없다. 둘째, 아가페적 사랑은 그 대상의 가치와는 무관하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셋째, 아가페적 사랑은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 가치를 창조해 주고 부여해 주는 사랑이다. 넷째, 아가페적 사랑은 하느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사랑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하며, 오직 하느님의 도움으로만 하느님과 만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선한용, 「기독교적 아가페와 플라톤적 에로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 시도」, 『신학과 세계』 28권, 1994, pp. 134-137 참조.)
- 9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삶이 기계에 의해 통제되며 종속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이다. 영화에서 주인공 찰리는 현대기계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현대의 기계 문명 속에서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찾아다니지만, 결국에는 어떤 행복도 실현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헤매고만 다닌다.
- 10 키에르케고르는 인간 실존의 3단계 중 마지막인 종교적 단계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신 앞에 선 단독자”로 표현하면서 인간 스스로가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고 했다.
- 11 종교는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종교의 특징도 다양하다. 예컨대 종교는 불멸하는 신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초월적인 힘을 따르며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자기보다 높은 어떤 존재와의 만남을 바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신에 대한 절대적 의존으로 생각하기도 하며, 그리고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